

청년실업대책등 토론

청소년지도자 축제열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현성)가 새로운 청소년문화 선도를 위한 '차세대 청소년지도자 축제'를 10월 31일 국제청소년센터국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축제에는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을 비롯 전국 16개 대학 청소년(지도)학과 재학생 300여명이 참석해 청소년지도자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 강화, 청소년관련대학과 청소년활동 현장의 협동체제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또한 청년실업대책의 정책방향 토론회와 학계와 현장의 만남인 '취업박람회'도 마련했다.

축제는 고등학생들의 길놀이와 전통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지도자 상찬, 문공부장관과 청소년지도자의 오찬간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김은경 기자

“인터넷 도서관서 책 읽어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집이나 PC방에서 인터넷으로 읽는다. 학교 밖에서 열린 법회도 가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본다.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교장 이근우)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별이 없다. 10월 28일 디지털 전자도서관과 청담인터넷방송국이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IT 인재 양성을 목표로 중점 학교로는 유일하게 '특성화 고교' 기지를 들고 나선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의 디지털 전자도서관은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www.cheongdam.hs.kr)에 접속해 ID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는 도서자료를 검색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수업 시간에 교실에 마

학교 '홈피' 접속 원하는 도서자료 검색 인터넷방송 통해 각종학습자료 얻어

청담정보통신고 전자도서관·인터넷 방송국 열어

련된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사들의 학습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전자도서관의 자랑거리. 전자도서관 관리를 맡은 김영환 교사는 “디지털교육환경 기반 구축을 통해 자율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된 학습을 가능토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와 학

습정보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청담인터넷방송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인터넷 방송은 24시간 교과학습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학교 홍보와 법회, 동아리활동, 축제 등 각종 행사들을 동영상 자료로 축적하는 효과도 갖는다. 이근우 교장은 “학생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 인터넷 방송국.

이 중심이 된 자율운영 체제를 갖추고 있지 만 학교 측도 다양한 콘텐츠 확보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28일 행사에는 학교설립자인 혜성 스님 과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 김선기

평택시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청담고 가 10월 14일 실시한 제1회 전국중학생 컴퓨터 그래픽 정보검색 대회 입상자 34명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다.

평택=임연태 기자 yim@buddhapia.com



회계사 청년회원들이 현각스님과 함께 불교교리와 수행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모습.

“저희는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에요.” 화계사 청년회 40여명의 청년들이 이같이 말하며 환히 웃어 보였다. 10월 25일 대학로의 한 카페에서 갖은 '현각스님과 티타임'.

“초발심은 첫사랑과 비슷 잊혀졌다 아련히 피어나죠”

회계사 청년회원들 현각스님과 티타임

“젊은이들에게 생활 속 수행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사찰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 이곳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각스님은 이같이 말하며 탁자 앞에 놓여진 음료수를 들이켰다.

자신에 대한 질문·믿음과 실천 중요

“초발심은 첫사랑과 비슷해요. 시간이 흘러 잊혀졌다 생각해도 때때로 가슴 속에서 아련히 피어나는 감정이지요. 그러나 공부하지 않으면 그 초발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예복도 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예요.”

“하지 말아요. 억지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앉아 자연스럽게 호흡해 봐요.”

살과 죽음의 차이, 불교에서의 남녀평등,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등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질문에 현각스님은 손발짓을 총동원하며 설명하기에 열중이었다.

“생각이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와 아무리 힘을 겨루며 싸워봤자 자신만 아를 뿐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 내쉬는 호흡 속에 그 번뇌스러운 생각이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생각은 살도 때론 죽음으로 만들지만 이것은 모두 생각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염주 한알 한알에 불심 가득히...

북서울중학 불교학생회 CA전시회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요.” 반운주 학생의 말에 김보영 학생이 고개를 획 돌리며 한 마디를 한다. “아냐. 우리들 각각이 모두 부처님이 라고 했어.”

강당 한편에 마련된 CA(특별활동) 전시회장에서 토닥토닥 말쑤움을 벌이는 이들은 도봉구에 위치한 북서울중학교 불교학생회 1학년 학생들이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시회장을 찾은 학생들은 불교학생회 작품코너에 붙여 염주와 연꽃 등을 만져보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도래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가득 받고 있는 북서울중 불교학생회의 씩씩한 모습은 이젠 김규진 지도교사와 회명화 법사이다. 김규진 지도교사는 작년 북서울중에서 첫 부임해 불교학생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불교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포교사단에 도움을 요청해 회명화 법사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불교학생

를 이끌어왔다.

“많은 불자교사들이 마음을 내서 청소년포교의 최전선인 학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회명화 법사는 그 동안 활동하며 느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연등 앞에서 북적이는 학생들에게 다가갔다. 또 다른 불(佛)씨를 퍼뜨리기 위해, 김은경 기자

삼각산·마이산·주왕계곡 문화재청 명승지로 지정

삼각산(명승 제10호), 청송 주왕산 주왕계곡 일원(명승 제11호), 진안 마이산(명승 제12호)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명승)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0월 31일 문화재 보호법 제6조에 의거 이들 3곳을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정사유에서 “삼각산은 인수, 백운, 만경의 세봉우리가 지니는 신비로운 자태와 영산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고 도를 닦던 민족사와 문화사적 가치가 큰 곳”이라고 밝혔다. 주왕산에 대해서는 “백악기 화산암류로 구성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산봉우리마다 주왕의 전설이 얽혀 있는 등 명승으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진안 마이산의 경우 “탑처럼 우뚝 솟은 모양의 경관적 가치와 풍화표면에 수많은 풍화혈이 발달한 학술적 가치가 큰 산”이라며 지정사유를 밝혔다. 오유진 기자



북서울 중학교 학생들이 '불교학생회' 전시코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수련회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고 있다.

정토회, 유수스님 초청 美뉴욕서 '깨달음의 장'

정토회(대표 유수 스님) 제254차

‘깨달음의 장’ 수련이 10월 22~27일 뉴욕주 스토니포인트 보리사(주지 원영스님)에서 개최됐다. 유수 스님은 ‘자유로운 사람,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되자’는 주제 아래 수련회를 이끌고 워싱턴, 뉴욕, 뉴저지 등지에서 교도들이 참석

했다. ‘깨달음의 장’ 수련은 간화선을 현대식으로 응용한 자아찾기 프로그램이다. 수련회가 끝난 후 유수 스님은 27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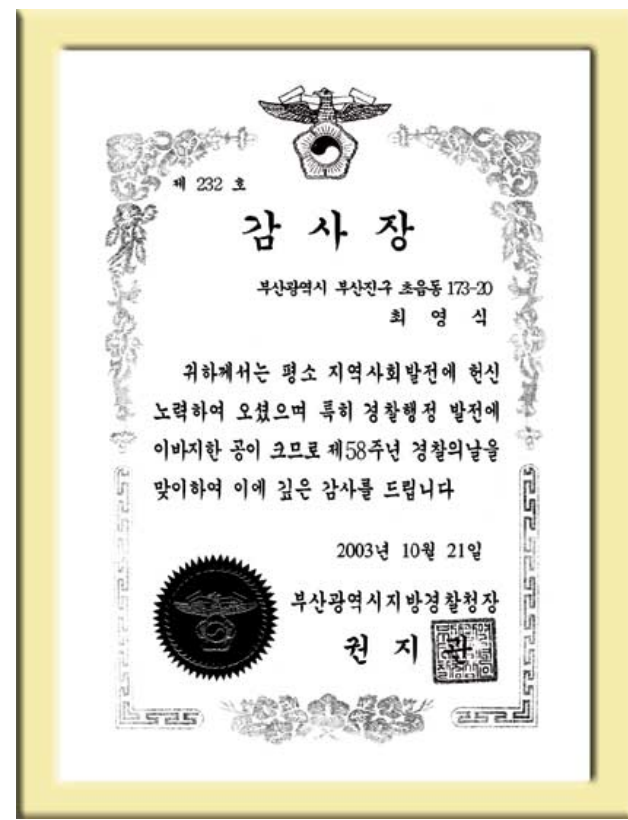


지도교사 박봉순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파동명상 지도사 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련내용 파동명상제형: 제주(祭主) 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원격명상제형: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영통靈通수련: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 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 (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수련대상: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수련교재: 기초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수련일시: 11월 둘째주, 넷째주 수련과정 (1대 1 개인지도 가능, 전화문의 바람) 1 파동명상 전문반: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 (수련비 200만원) 2 영통수련반: 상담 후 결정



파동명상수련으로 수많은 강력사건 유괴살해·강도·강간을 해결하는데 기여도를 인정받아 제 58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부산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본 감사장을 수여 받았습니다.